

春秋筆法試論

-杜預 <序>를 중심으로

朴晟鎭*

◁ 목 차 ▷

- I. 서론
 - II. '五例'에 대한 諸說
 - III. '五例'의 意義
 - IV. '數句以成言'의 導出
 - V. 결론
-

I. 서론

春秋筆法¹⁾은 《春秋》라는 編年體 史書에 담긴 글쓰기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孔子가 《春秋》를 편수한 것이라는 오랜 믿음으로 《春秋》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언어·수사방면에 있어서 모두 큰 의미를 내포한다고 여겨졌다.²⁾ 특히 史實만을 기록하는 역사서에서 진일보하여 특수한 글쓰기 방식을 통하여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春秋》는 단순한 史의 범주를 벗어나 文·史·哲을 아우르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 성균관대 연구교수

- 1) 《左傳》宣公 2年: 「孔子曰: 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에서 筆法과 같은 의미로 書法이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다. 또한 義例(元 黃澤 《春秋義例》)·義法(清 方苞 《春秋義法解要》)·筆削大義(康有爲 《春秋筆削微言大義考》)등 여러 용어가 筆法과 혼용되었다. 春秋筆法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문헌은 宋 陳則通의 《春秋提綱》이다. 范成大 《石湖居士詩集》에는 魯史筆法이라 쓰기도 하였다. 春秋筆法이란 용어는 宋 이후부터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孟子》〈滕文公〉·〈離婁〉및 《史記》〈孔子世家〉·〈儒林列傳〉·〈太史公自序〉등에 보인다. 孔子와 《春秋》의 관계에 대해서는 拙稿 〈先秦人の春秋觀〉(《중국어학연구》 27집, 2003. 12) 참조

있었다. 우리 한국의 先人들도 《春秋》에 관한 많은 저작을 통하여 그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였다.³⁾ 과거 학자들이 《春秋》의 연구에 이토록 노력을 경주한 까닭은 史書를 편찬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사회적인 현안에 대하여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의 일환이었다.

朝鮮의 경우, 주지하듯 親明排元 정책으로부터 北伐論 및 衛正斥邪論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春秋》는 정치적 명분의 기준점이 되었고, 사회의 기풍을 선도하였으며, 선비의 정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⁴⁾ 한편, 중국에서는 초기의 정치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明·淸 이후부터는 문학작품의 창작과 비평영역에서 春秋筆法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⁵⁾ 지금까지도 春秋筆法과 문학작품을 연계시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⁶⁾

本稿의 연구 동기는 漢字文化圈 전역에 영향을 미친 春秋筆法의 실체를 규명하려는데 있다. 春秋筆法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春秋》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春秋》뿐 아니라 春秋筆法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작품들의 글쓰기 경향에 대해 그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인접한 많은 학문과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春秋筆法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의 해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난관에 부딪혔다. 春秋筆法에 대하여 혹자는 一字褒貶을 말하기도 하고,⁷⁾ 혹자는 微言大義를 말하기도 하고,⁸⁾ 혹자는 아예

3) 《韓國經學資料集成》「春秋編」, 성대, 1996에 수록된 자료는 대략 70여종이 된다. 이 밖에도 상당량의 저작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금장태 《한국사상의 심층》(우석, 1996) 참조. 일례로 최익현 絕命詩의 마지막 구절은 「一生長讀魯《春秋》」이다.

5) 明 胡震亨의 《唐音癸籤》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후 詩文評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6) 石昌渝 《春秋筆法與紅樓夢的敘事方略》, 《紅樓夢學刊》, 2004 및 河謙衛 〈儒林外史中春秋筆法的理解與翻譯〉, 《海南師範大學學報》, 2003 참조

7) 范甯 《春秋穀梁傳·序》: 「《春秋》一字之褒, 龍蹕華袞之贈; 片言之貶, 辱過市朝之縫。」; 劉勰 《文心雕龍·徵聖》: 「《春秋》一字以褒貶」; 〈史傳〉: 「因魯史以修《春秋》, 舉得失以表黜陟, 徵存亡以標勸戒; 褒見一字, 貴踰軒冕; 貶在片言, 誅深斧鉞. 然睿旨幽隱, 經文婉約,」

8) 淸 乾隆御製 御纂《春秋直解·序》: 「我皇祖欽定傳說彙纂一書, 鎔範羣言, 去取精當 麟經之微言大義, 炳若日星. 朕服習有年, 紹聞志切近」; 章學誠 《文史通義·史注》:

筆法の 존재를 否定하기도 한다.⁹⁾ 否定論은 차치하더라도, 一字褒貶과 微言大義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春秋筆法이라 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春秋筆法에 대해 전혀 다른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급하여 말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春秋》 스스로 자신의 편찬의도 혹은 기술원칙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春秋》는 아무 설명 없이 年度별로 국가의 大事만을 적어 놓았다. 따라서 후인들은 각자의 학문적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상충되는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원인은 최초의 해설서인 三傳의 견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傳을 계승한 각 학파마다 春秋筆法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 이 또한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다음 같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의 첫 단계로 三傳을 하나씩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는 三傳을 취합하여 설명하면 기존의 일반론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 먼저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려 한다. 우선 本稿에서는 그 첫 번째로 《左傳》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자들이 《左傳》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 기본이 되는 책은 풀나라 杜預의 《春秋經傳集解》(이하 약칭 《集解》)이다. 杜預는 평생 《左傳》을 연구하여 마침내 《集解》를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左傳》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집대성하고 여러 관련 저작들을 완성하여 左傳學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이다.¹⁰⁾ 이후 唐나라때에는 孔穎達이 《集解》를 《春秋正義》(이하 약칭 《正義》)의 저본으로 삼았고, 宋나라때에는 《集解》를 注로 삼고, 《

「昔夫子之作《春秋》，筆削既具，復以微言大義，口授其徒。」

9) 程端學 《春秋本義·綱領》：「夾澗鄭氏(鄭樵)曰：以《春秋》爲褒貶者亂《春秋》者也。」：《朱子語類》卷第83：「《春秋》只是直載當時之事，要見當時治亂興衰，非是於一字上定褒貶。又曰：《春秋》傳例多不可信。聖人記事，安有許多義例。」

10) 《春秋釋例》·《春秋長曆》·《盟會圖》·《世族譜》등을 저술했다. 晉 武帝에게 「《左傳》癖」이 있다고 대답한 일화가 유명하다. 《晉書·杜預傳》 참조

正義》를 疏로 삼아 지금의 《春秋左傳注疏》가 간행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左傳學을 연구하자면 반드시 《集解》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杜預의 《春秋經傳集解》의 〈序〉(이하 약칭 〈序〉)를 저본으로 삼아 左傳學派의 春秋筆法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杜預가 그의 〈序〉에서 春秋筆法에 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左傳》에서도 春秋筆法에 대해서는 한 대목에서만 단서를 제공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左傳學을 집대성한 杜預가 〈序〉에서 春秋筆法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실로 左傳學派의 春秋筆法에 대한 定義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孔穎達 또한 이 점을 간파했기에 대량의 문자를 사용하여 《正義》를 통해 상세히 보충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序〉와 《正義》의 내용을 살피면서 주제를 논술하고자 한다.

II. ‘五例’에 대한 諸說

杜預가 春秋筆法의 근거로 삼은 문장은 《左傳》 成公 14년의 기록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春秋》의 말은 微細하지만 그 뜻은 잘 드러나 있고, 史實을 기록하되 그 뜻은 심오하며, 완곡하게 표현하되 條理를 이루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기록하여 에두르지 않았으며,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였다. 聖人이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편수할 수 있겠는가?(《春秋》之稱, 微而顯·志而晦·婉而成章·盡而不汙·懲惡而勸善·非聖人, 誰能脩之《春秋》)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즉 「微而顯」·「志而晦」·「婉而成章」·「盡而不汙」·「懲惡而勸善」는 《春秋》의 기술상의 방법이나 의도를 말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春秋》에는 자신의 體裁에 관해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左傳》의 이 기록이 《春秋》의 글쓰기에 관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杜預가 자신의 〈序〉에서 춘추필법 구현의 준칙으로 이 내용을 채택한 것이

다. 그는 이것을 《春秋》의 '五例'¹¹⁾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序〉에서 《左傳》의 원문을 아래같이 다시금 풀어놓았다.

첫째는 微細하지만 뜻은 잘 드러난 것으로 말은 여기에 보이나 일으킨 뜻은 말 밖에 있는 것이다. "族을 칭한 것은 君命을 높인 것이다"·"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夫人을 높인 것이다"·"梁나라가 멸망하였다"·"緣陵에 성을 쌓았다"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史實을 기록하되 뜻은 심오하게 한 것으로 간략한 말로 法制를 보여 이를 미루어 그 例를 알게 한 것이다. "세 나라 이상의 임금에 회합한 경우에는 만만 장소를 칭하지 않는다"·"謀議에 참여한 경우에는 及이라고 칭한다"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완곡하게 표현하되 條理를 이룬 것으로 의로운 가르침을 따라 天子에게 순종하는 도리를 보인 것이다. 모든 諱辭와 "璧을 주고 許를 빌렸다"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기록하여 애두르지 않은 것으로 그 사실을 슬직하게 기록하고 문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譏諷의 뜻을 보인 것이다. "기둥에 붉은 칠을 하였다"·"서까래에 조각을 하였다"·"天王이 수레를 요구하였다"·"齊侯가 戰利品을 바쳤다"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惡을 징계하고 善을 권장한 것으로 명예를 구하고자 한 자에게는 그 이름을 물어버리고, 惡名을 은폐하고자 한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齊豹'를 '盜'라고 기록한 것과, 세 반역자의 이름을 기록한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다섯 가지 체계를 기준으로 《春秋》와 《左傳》의 뜻을 터득하여 유사한 일에 미루어 242년의 行事에 대비해 보면 王道의 正法과 인륜의 기강이 완비될 것이다. (一曰：微而顯，文見於此而起義在彼。稱族，尊君命；舍族，尊夫人。梁亡·城緣陵之類是也。二曰：志而晦，約言示制，推以知例。參會不地·與謀曰及之類是也。三曰：婉而成章，曲從義訓，以示大順。諸所諱辭，璧假許田之類是也。四曰：盡而不汙，直書其事，具文見意。丹楹刻桷·天王求車·齊侯獻捷之類是也。五曰：懲惡而勸善，求名而亡，欲蓋而章，書齊豹盜，三叛人名之類是也。推此五體，以尋經傳，觸類而長之，附于二百四十二年行事，王道之正，人倫之紀，備矣。)

이렇듯 杜預는 '五例'를 春秋筆法の 원칙으로 인식하고 이를 더욱 소상히

11) '五例'를 현대어로 풀이함에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楊伯峻은 《春秋左傳注》에서 다음 같이 풀이하였다. 「《春秋》之稱，用詞造句：微而顯，言辭不多而意義顯豁；志而晦，記載史實而意義幽深；婉而成章，表達婉轉屈曲，但順理成章；盡而不汙，杜註：謂直言其事，盡其事實，無所迂曲。」

설명하며 그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였다.

杜預가 이런 주장에 대하여 역대학자들의 평가는 분분하였다. 먼저 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소개한 부정론자인 朱熹와 鄭樵를 제외하고도,¹²⁾ 여러 학자들이 부정하거나 혹은 회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예컨대 「微而顯」의 사례로 제시된, 《春秋》 成公 14년의 “가을, 叔孫僑如가 齊나라에 가서 부인을 마중했다”, “九月, 僑如가 夫人 姜氏를 모시고 齊나라로부터 돌아왔다”는 기록에 대하여, 《左傳》에서는 “族을 칭한 것은 君命을 높인 것이고, 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夫人을 높인 것이다”¹³⁾라고 풀이하였는데, 宋나라 劉敞은 다음같이 비판하였다.

《左傳》에서 “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夫人을 높인 것이다”고 말했지만, 틀린 해설이다. 이것은 동일한 사안이 두 번 나온 것으로, 한 사람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름만 칭한 것이다.(《左傳》曰: 遂不稱族, 尊夫人也. 非也. 此所謂一事而再見, 卒名耳.)¹⁴⁾

清나라 郝懿行도 유사한 발언을 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두 번 나온 것으로, 이름만 칭한 것이다. 僑如라고만 하고 叔孫이라는 氏을 뺀 것은, 앞에 이미 나오기 때문이다.(一事而再見者, 卒名之. 僑如不氏, 前已見也.)¹⁵⁾

「志而晦」의 경우도 劉敞은 《左傳》과 杜預가 제시한 원칙과 사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¹⁶⁾ 「懲惡而勸善」의 경우, 杜預가

12) 朱子の 경우 《語類》 곳곳에서 《春秋》에 어떤 筆法이나 義例가 있다는 설을 부정하고 있다.

13) 《春秋》 成公 14年: 「秋, 叔孫僑如如齊逆女. 九月, 僑如以夫人歸姜氏至自齊. : 《左傳》: 「秋, 宣伯齊逆女. 稱族, 尊君命也. 九月, 僑如以夫人婦姜氏至自齊. 舍族, 尊夫人也.」

14) 劉敞 《春秋權衡》, 卷5

15) 郝懿行 《春秋說略》, 卷8

16) 《左傳》 宣公 7年の 「凡師出, 與謀日及, 不與謀日會」라는 기록에 대하여, 劉敞은 《

거론한 《春秋》 昭公 20년에 기록에 대하여 宋나라 趙匡은 다음 같이 반박했다.¹⁷⁾

《左傳》의 설명에 따르면, 齊豹는 絜에게 화가 나서 죽은 것이지 어디 명예를 얻고자 한 뜻이 있는가.……또 《左傳》에서 말하길, 세 사람의 반역자는 그 이름을 가리려 했으나 도리어 드러내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微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지만, 孔子께서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이와 같다면 세 사람이 공자가 《春秋》를 지을 때 천한 자들은 이름을 적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인가? 이 때문에 땅을 훑나라에 뇌물로 주고 孔子에게 쓰지 않도록 했다는 말인가? 왜 이름을 가리려 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모두 허망한 曲說이고 대단히 의심스럽다.(據左氏說, 齊豹乃是怒絜而殺之, 何得妄有求名之義乎?……又云三叛人欲蓋而名彰, 言其賤必不書其名, 夫子矯其心而書爾. 如此則三人預知夫子修《春秋》賤者不書其名乎? 爲是將地賂魯而屬夫子令不書乎? 何言欲蓋也? 皆妄爲曲說, 殊可怪也.)

이상이 필자가 수집한 대략이다.¹⁸⁾ 이를 통해 보면 杜預의 說이 모든 사람에게 동의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今文經學과 古文經學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漢代부터 學派마다 견해가 상이하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杜預 〈序〉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학자는 아마 錢鍾書가 유일한 듯하다. 그는 ‘五例’의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微而顯」·「志而晦」·「婉而成章」·「盡而不汙」는 史書 편찬의 體에 해당하고, 「懲惡而勸善」은 그 用에 해당한다. 體만을 보면, 「微而顯」·「志而晦」·「婉而成章」은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간략하면서도 뜻을 내포한 글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다만 「盡而不汙」는 이와는 다른 차원 문제로 보는데 ‘直’과 ‘盡’을 결합하되 지나치는 폐단이 없도록 요구한 부분

春秋權衡》 卷5에서 “用《左傳》考之, 凡先謀而後罰者, 稱會多矣, 不必云及也.”라고 반박하고 있다.

17) 陸淳 《春秋集傳辨疑》, 卷10

18) 唐代 이후 三傳에 대한 비판이 심해진다. 따라서 《左傳》과 杜預에 대한 비판적 언설은 상당히 많다. 다만 本稿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설은 많이 찾지 못했다. 앞으로 더 많은 유관자료를 수집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이라 풀이하고 있다.¹⁹⁾ 그의 분석을 통하여 그가 '盡而不汙'를 으뜸의 덕목으로 존중함을 엿볼 수 있다.

이어서 그는 '五例'는 《春秋》에서는 修辭學의 영역이고, 《左傳》에서는 文章學의 영역이라고 단언한다. 흥미로운 것은 '五例'를 가지고 판단할 때, 《春秋》는 修辭學적으로 실패한 史書라는 것이다. 우선 《春秋》는 三傳이 없으면 이해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五例'라는 修辭 표준으로 볼 때, 《春秋》는 적어도 「盡而不汙」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실 《春秋》의 修辭가 간단한 말속에 뜻을 감추는 듯한 경향으로 치우친 것은 아마 당시의 필기도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後人들이 그 연유는 모르고 이것을 찬양하는 말들을 지어내고 이로 인해 春秋筆法이 史家들에게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²⁰⁾ 행간을 살펴볼 때, 錢鍾書는 史書의 修辭에서 盡而不汙를 중심에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그의 글을 종합해 보면, 錢鍾書는 杜預<序>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 있으며, 이를 史書를 판단하는 準據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래에서 '五例'의 구체적 내용을 《正義》를 참조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19) 錢鍾書 《管錐編》 卷1: 「就史書之撰作而言, '五例'之一,二,三,四示載筆之體, 而其五示載筆之用. 就史學之演進而言, '五例'可徵史家不徒紀事傳人, 又復垂戒致用, 尙未能通觀古今因革沿變之理, 道一以貫, 三階已陟其二矣. 微·晦·不汙, 意義鄰近, 猶顯·志·成章·盡也. 微之與顯, 志之與晦, 婉之與成章, 均相反以相成, 不同而能和. 汙, 杜註: 曲也, 謂直言其事, 盡其事實, 而不汙曲; 杜<序>又解爲直書其事, 則齊此語於盡而直, 頗嫌一意重申, 駢枝疊架, 與前三語不倫. 且也, 直不必盡, 未有盡而不直者也. 《孟子·公孫丑章》: 汙不至阿其所好, 焦循《正義》: 汙本作汚, 蓋用爲夸字之假借, 夸者大也; 《荀子·大畧篇》稱小雅不以於汙上, 亦卽此汙字. 言而求盡, 每有過甚之弊, 莊子人間世所謂溢言, 不隱不諱而如實得當, 周詳而無加飾, 斯所謂盡而不汙耳.」

20) 上揭書: 「這樣, 《春秋》의 微而顯的手法, 在《春秋》裏只通過稱公孫僑如和僑如來顯示, 是屬於修辭學, 在《左傳》裏, 對微而顯的手法, 作了具體說明, 這就屬於微顯闡幽的文章學了. 《春秋》魯僖公十九年終: 梁亡. 《左傳》: 梁亡, 不書其主, 自取之也. 初, 梁伯好土功, 亟(急)城而弗處, 民罷(疲)而弗堪, 則曰: 某寇將至. 乃溝公宮, 曰: 秦將襲我, 民懼而潰, 秦遂取梁. 《春秋》只記梁亡, 含有梁自取滅亡之意, 所以不作秦滅梁, 不記秦的主名, 這是微而顯的手法. 《左傳》把《春秋》的用意作具體說明, 這就是微而顯闡幽的文章學了. 《春秋》의 五種筆法, 《左傳》都通過具體說明來加以闡發, 這里就不再一一說明了.」

21) 錢鍾書 《宋詩選注·序》 참조

Ⅲ. '五例'의 意義

1. 微而顯²²⁾

“微細하지만 그 뜻은 잘 드러나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기록으로 杜預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²³⁾ 僖公 14년의 “諸侯들이 緣陵에 성을 쌓았다”에서 諸侯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쓰지 않은 것, 僖公 19년의 “梁나라가 망했다”에서 梁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것이나 주체를 밝히지 않은 것, 成公 14년의 “僑如가 魯君의 부인 姜氏를 모시고 齊나라에서 돌아왔다”에서 族命인 叔孫을 명기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梁나라가 망했다”고 기록한 예를 보자. 이 사건에 대한 《左傳》의 기록을 보면 사실은 秦나라가 梁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²⁴⁾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서 본 시선이고, 내부에서 보면 梁나라는 이미 존속할 모든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다만 어느 나라가 梁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던 간에 梁나라가 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梁나라를 멸망시킨 秦나라의 국명을 삭제하고 말을 바꿈으로써 독자들이 經文의 문구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梁나라를 멸망시켰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杜預가 말한 “말은 여기에 보이나 일으킨 뜻은 말 밖에 있는 것이다”라는 해설을 적용하면 ‘文

22) 《正義》：「文見於此，謂彼注云，辭微而義顯也。稱族，尊君命，舍族，尊夫人。成十四年傳爲叔孫僑如發也。經曰秋，叔孫僑如如齊逆女。九月，僑如以夫人歸姜氏至自齊。叔孫是其族也，褒賞稱其族，貶責去其氏，銜君命出使稱其族，所以爲榮；與夫人俱還去其氏，所以爲辱。出稱叔孫，舉其榮名，所以尊君命也；入舍叔孫，替其尊稱，所以尊夫人也。族自卿家之族，稱舍別有所尊，是文見於此，而起義在彼。僖十九年經書梁亡，是秦亡之也。傳曰不書其主，自取之也。僖十四年經書諸侯城緣陵，是齊率諸侯城之，以遷祀也。傳曰不書其人，有闕也。秦人滅梁而曰梁亡，文見於此，梁亡見取者之無罪。齊桓城祀而書諸侯城緣陵，文見於此，城緣陵見諸侯之有闕，亦是文見於此，而起義在彼。皆是辭微而義顯，故以此三事屬之。」

23) ‘五例’ 각 항목의 구체적 사례는 II장의 인용문 참조.

24) 《春秋》僖公 19年：「冬，梁亡。」：《左傳》：「冬，梁亡，不書其主，自取之也。初，梁伯好土功，亟城而弗處，民罷而弗堪，則曰：『某寇將至』，乃溝宮，曰：『秦將襲我』，民懼而潰，秦遂取梁。」

見於此'는 '梁나라가 망했다'는 기록을 뜻하고, '起義在彼'는 梁나라를 취한 秦나라가 무죄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僖公 14년의 경우는 杞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받아 점령당하자, 齊桓公을 위시한 諸侯들이 그를 도와 緣陵에 새로이 성을 쌓아준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 주체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도와주긴 했으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돌봐주지 않았기에 그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杜預는 말하였다.²⁵⁾ 따라서 "諸侯들이 緣陵에 성을 쌓았다"라고 한 것이 '文見於此'이고,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음을 비난한 것이 '起義在彼'이다.

成公 14년의 경우, "가을, 叔孫僑如가 齊나라에 가서 부인을 마중했다", "九月, 僑如가 夫人 姜氏를 모시고 齊나라에서 돌아왔다."라는 《春秋》의 기록이 '文見於此'이고, "族을 칭한 것은 君命을 높인 것이고, 族을 칭하지 않은 것은 夫人을 높인 것이다"라는 《左傳》의 해설이 '起義在彼'에 해당한다.²⁶⁾ 孔穎達은 《正義》에 덧붙이기를 임금의 명으로 出使한 것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族名을 썼으나, 귀국시에는 여인을 호송하여 오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그 族名을 쓰지 않았다고 해설하였다. 『微而顯』의 경우 그 해석이 여러 갈래일 수 있다. 그것은 '而'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것이다. 대체로 '而'를 順接으로 보는 것과 轉折로 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杜預가 든 실례를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에 轉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판단된다. 그리고 『微而顯』은 '一字褒貶'과 유사한 듯 보이나, 기실 성격이 다른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글자의 선택에 의하여 是非好惡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微而顯』은 다수가 공유하는 시각과는 상이한 문장을 제시하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것은 史官이 가진 일종의 언어 權力에 속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25) 《春秋》僖公 14年: 「春, 諸侯城緣陵」: 《左傳》: 「春, 諸侯城緣陵而遷杞焉, 不書其人, 有關也。」: 《集解》: 「關謂器用不具, 城池未固而去, 爲惠不終也。」

26) 주 13 참조.

2. 志而晦²⁷⁾

“史實을 기록하되 뜻은 심오하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기록으로 杜預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春秋》에서 세 나라 이상의 회합에서 돌아 올 때는 地名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회합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한 것, 出兵할 때, 사전에 모의가 있었으면 ‘及’으로 쓴다고 기록한 예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첫째 경우에 대하여 《正義》의 설명에 따르면, 桓公 2년 “戎과 唐에서 盟을 맺고, 公이 唐에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에 대한 《左傳》의 설명을 보면, 두 나라가 만날 경우 主幸者의 자리를 서로 사양하기에 지명만을 기록하고, 세 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한 나라가 主幸者가 되니 회합에서 돌아왔다고 쓴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두 나라가 만난 경우 지명만을 쓴 사례를 미루어 보면 세 나라가 만날 경우를 알 수 있다.

杜預가 지적한 두 번째 유형인 “謀議에 참여한 경우에는 及이라고 칭한다”에 관하여 살펴보면, 《左傳》 宣公 7년에 “무릇 군사를 출동시켰을 때 서로 사전에 모의가 있었으면 ‘及’이라고 하고, 미리 모의하지 않았으며 그저 ‘會’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 이처럼 《左傳》의 기록에 의하면 《春秋》에서 及과 會의 용례는 수없이 많이 보이지만 杜預가 지적한 例는 군사를 출동시킨 일, 즉 두 나라 이상이 군사를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결국 표현방법 혹은 어휘선택을 통해

27) 《正義》: 「彼注云, 志記也. 晦, 亦微也. 謂約言以記事, 事叙而文微. 桓二年, 秋, 公及戎盟于唐. 冬, 公至自唐. 傳例曰特相會, 往來稱地, 讓事也. 自參以上, 則往稱地, 來稱會, 成事也. 其意言會必有主, 二人共會, 則莫肯爲主, 兩相推讓, 會事不成, 故以地致. 三國以上, 則一人爲主, 二人聽命, 會事有成, 故以會致. 宣七年, 公會齊侯伐萊. 傳例曰凡師出, 與謀曰及, 不與謀曰會. 其意言同志之國, 共行征伐, 彼與我同謀計議, 議成而後出師, 則以相連及爲文, 彼不與我謀, 不得已而往應命, 則以相會合爲文. 此二事者, 義之所異, 在於一字. 約少其言, 以示法制, 推尋其事, 以知其例. 是所記事有叙, 而其文晦微也.」

28) 《春秋》 桓公 2年: 「秋, 公及戎盟于唐. 冬, 公至自唐.」: 《左傳》: 「特相會, 往來稱地, 讓事也. 自參以上, 則往稱地, 來稱會, 成事也.」

29) 「凡師出, 與謀曰及, 不與謀曰會.」

법칙을 만들어 그것을 미루어 다른 예를 알게 한다. 이러한 「志而晦」의 수법은 문학 언어가 함축적 의미를 추구하는 정신과도 서로 부합된다.

3. 婉而成章³⁰⁾

“완곡하게 표현하되 條理를 이루었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기록으로 杜預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諱避가 그 대상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적시가 없다.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하여는 《正義》에서 보충하고 있다. 僖公 17년 《春秋》의 기록에는 “공이 회합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는데, 《左傳》에는 16년에 魯나라 僖公이 諸侯들과 만났다가 齊나라 桓公에 의하여 강제로 억류되었고, 해를 넘겨 겨우 돌아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春秋》가 사실을 直書하기를 꺼려 이처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諱避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杜預가 지적한 사례는 桓公 元年의 “鄭나라 임금이 玉으로 許田을 빌렸다”라는 기록이다. 《春秋》에서는 ‘빌렸다’라고 표현하였으나 사실은 鄭나라가 祊田에다 玉을 얹어서 魯나라의 許田과 맞바꾼 것이었다. 먼 옛날 周公은 周나라의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로 인해 魯나라를 받게 되었다. 그가 죽은 후에 周天子는 魯나라에 땅을 하사하고 거기에 별도로 사당을 세워 周公을 제사지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땅은 鄭나라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鄭나라도 선조인 武公의 공훈으로 天子에게 祊田을 받았는데, 그 땅은 魯

30) 《正義》: 「彼注云, 婉, 曲也. 謂屈曲其辭, 有所諱諱, 以示大順, 而成篇章. 言諸所諱諱者, 其事非一, 故言諸以總之也. 若僖十六年, 公會諸侯於淮, 未歸而取項, 齊人以爲討而止公. 十七年, 九月, 得釋始歸, 諱執止之恥, 諱而不言, 經乃書公至自會. 諸如此類, 是諱諱之事也. 諸侯有大功者, 於京師受邑, 爲將朝而宿焉, 謂之朝宿之邑. 方岳之下, 亦受田邑, 爲從巡守備湯水以共沐浴焉, 謂之湯沐之邑. 魯以周公之故, 受朝宿之邑於京師許田是也. 鄭以武公之勳, 受湯沐之邑於秦山祊田是也. 隱桓之世, 周德既衰, 魯不朝周, 王不巡守, 二邑皆無所用, 因地勢之便, 欲相與易, 祊薄不足以當許, 鄭人加璧以易許田. 諸侯不得專易天子之田, 文諱其事. 桓元年, 經書鄭伯以璧假許田, 言若進璧以假田, 非久易也. 掩惡揚善, 臣子之義, 可以垂訓於後. 故此二事皆屈曲其辭從其義訓, 以示大順之道. 是其辭婉曲而成其篇章也.」

나라 영역 안에 있었다. 그래서 鄭나라 임금이 자신이 대신 周公의 제사를 지내겠으니, 서로 땅을 교환하자고 하였다. 魯나라에게는 그럴듯한 제안이었지만, 자기 땅이 더 크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 鄭나라는 그 속내를 헤아리고 璧을 더 없어주어 일을 성사시켰다. 결국 서로 땅을 교환한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周 天子가 하사한 땅을 諸侯들끼리 마음대로 맞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차마 영원히 맞바꾸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잠시 빌렸다는 말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天子의 토지를 무단으로 맞바꾼 죄를 희석시켜 감추는 대신 신하된 도리를 조금이라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杜預가 말한 '義로운 가르침을 따라 天子에게 順從하는 도리를 보인 것'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歪曲 혹은 曲筆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사회적 기풍으로 보아, 글쓰는 자와 그 대상이 되는 인물 혹은 사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張力을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4. 盡而不汙³¹⁾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기록하여 에두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기록하여 뜻이 완전히 노출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莊公 23년에 桓宮 기둥에 단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桓宮의 서까래에 조각까지 했다는 기록과, 桓公 15년에 天子가 諸侯에게 수레를 요구한 일, 또 莊公 31년에 齊나라 임금이 戎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天子에게 바친 일 등은 모두 《左傳》에 禮에 맞지 않는 일로 기록되어 있다. 즉 禮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부분은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숨기지 않았다.

史官과 史書의 존재 및 가치가 禮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상, 《春秋》

31) 《正義》: 「彼注云, 謂直言其事, 盡其事實, 無所汙曲, 禮制宮廟之飾, 楹不丹, 桷不刻. 莊二十三年秋, 丹桓宮楹; 二十四年, 春, 刻桓宮桷, 禮, 諸侯不貢車服, 天子不私求財. 桓十五年, 天王使冢父來求車, 禮, 諸侯不相遺俘. 莊三十一年, 齊侯來獻戎捷, 三者皆非禮而動, 直書其事, 不爲之隱, 具爲其文, 以見譏意. 是其事實盡而不有汙曲也.」

와 禮를 연결시킨 杜預의 생각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禮가 이미 무너져버린 당시 상황에서는 莊公이 先君의 廟에 단청이나 조각을 하건, 天子가 諸侯에게 수레를 요구하건, 諸侯가 天子에게 전리품을 바치는 일 따위의 사소한 일은 이미 천하의 관심사에 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사소한 일로 보이는 禮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감추어 없던 일로 삭제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禮마저 지켜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禮의 마지막 보루로서 《春秋》의 존재의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설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일일 지라도 禮에 맞지 않는 일이면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盡而不汙’는 무너진 禮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春秋》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작업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5. 懲惡而勸善³²⁾

“惡을 징계하고 善을 권장하였다”는 말은 사실 古代 史書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겠다. 杜預가 지적한 예를 살펴보면, 《春秋》 昭公 20년에 “盜가 衛나라 임금의 형인 紮를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左傳》에 의하면 원래 衛나라의 司寇였던 齊豹가 紮를 죽인 것이다. 司寇는 卿에 해당하는데, 《春秋》는 卿을 기록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써준다. 《正義》의 설

32) 《正義》: 「彼注云, 善名必書, 惡名不減, 所以爲懲勸. 昭二十年, 盜殺衛侯之兄 紮, 襄二十一年, 邾庶其以漆聞丘來奔, 昭五年, 莒牟夷以牟婁及防茲來奔, 昭三十一年, 邾黑肱以濫來奔, 是謂盜與三叛人名也. 齊豹, 衛國之卿, 《春秋》之例, 卿皆書其名氏, 齊豹忿衛侯之兄, 起而殺之, 欲求不畏疆禦之名, 《春秋》抑之, 書曰盜. 盜者, 賤人有罪之稱也. 邾庶其, 黑肱, 莒牟夷三人, 皆小國之臣, 並非命卿, 其名於例不合見經, 竊地出奔, 求食而已, 不欲求其名聞, 《春秋》故書其名, 使惡名不減. 若其爲惡求名而有名章微, 則作難之士, 誰或不爲? 若竊邑求利而名不聞, 則貪冒之人, 誰不盜竊? 故書齊豹曰盜, 三叛人名, 使其求名而名亡, 欲蓋而名章, 所以懲創惡人, 勸獎善人. 昭三十一年傳具說此事, 其意然也. 盜與三叛俱是惡人, 書此二事, 唯得懲惡耳, 而言勸善者, 惡懲則善勸, 故連言之。」

명에 따르면, 齊豹는 자신이 권세를 두려워 않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하여 살인을 하였다. 《春秋》는 그런 의도를 알기에 도리어 이름을 삭제하고 단순히 '盜'라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한 襄公 21년의 "邾나라 庶其가 땅을 가지고 魯나라로 도망 왔다", 昭公 5년의 "莒나라 牟夷가 땅을 가지고 魯나라로 도망 왔다", 昭公 31년의 "邾나라 黑肱이 땅을 가지고 魯나라로 도망 왔다"는 기록에 나타난 庶其·牟夷·黑肱, 즉 三叛은 가져온 땅으로 자신의 祿을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욕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春秋》에 밝힌 것이다.

상술했듯 《春秋》는 한 나라의 卿이 아니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미천한 직위에 있는 자들로서 자기 임금의 땅을 가지고 魯나라로 도망쳐왔다. 이렇게 自國의 땅을 훔치고 군주를 배반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데도 만천하에 그 汚名을 밝히지 않으면 장차 많은 백성들이 앞 다투어 私利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春秋》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천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원칙을 깨고 그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결국 이 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았겠지만 자신들의 탐욕과 불의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된 셈이다.

杜預가 말한 《春秋》 '五例' 중에서 앞에서 살펴 본 네 가지 例가 《春秋》의 표현방식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 「懲惡而勸善」은 《春秋》의 筆削意圖를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褒貶의도는 《詩》의 창작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杜預는 '五例'부분을 정리하며 "이 다섯 가지 체제를 미루어 《春秋》와 《左傳》의 뜻을 터득하여 類似한 일에 미루어 242년의 行事に 대비해 보면 王道의 正法과 인륜의 기강이 완비될 것이다"라고 총결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이 '五例'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IV. '數句以成言'의 導出

杜預가 〈序〉에서 《春秋》의 글쓰기를 논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할 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一字褒貶'에 대한 否定과 <

周易》과의 비교이다. 이 대목은 위에 제시된 '五例'에 대한 언급에 이어져 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春秋》는 글을 섞어서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經에는 당연히 같은 사건에 표현을 달리 했을 뿐, 다른 뜻이 없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先儒가 전한 것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春秋》가 비록 한 글자로서 褒善貶惡 하지만, 모두 여러 구절로 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八卦의 爻가 뒤섞여 64卦가 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傳의 글에 의거해 經의 뜻을 판단하여야 한다.”(或曰:《春秋》以錯文見義,若如所論,即經當有事同文異而無其義也.先儒所傳,皆不其然.答曰:《春秋》雖以一字爲褒貶,然皆須數句以成言,非如八卦之爻,可錯綜爲六十四也,固當依傳以爲斷.)³³⁾

《正義》에 따르면 이 문장은 假想의 인물과 문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즉 杜預가 의도적으로 自問自答한 것이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一字褒貶'에 대한 조건부 부정이다. 이 대목에서 당시 春秋筆法을 '一字褒貶'으로 이해하는 기풍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一字褒貶'식의 글쓰기는 《周易》의 변화원리를 적용시킨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것이다. 셋째, 經의 뜻은 《左傳》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세

33) 《正義》曰:「論經·傳之下,即是自述已懷,於文不次,言無由發,故假稱或問而答以釋之.《春秋》之經,侵伐會盟及戰敗克取之類,文異而義殊,錯文以見義.先儒知其如是,因謂苟有異文,莫不著義.杜以爲仲尼所述,據史舊文,文害者,則刊而正之,不害者,因其詳畧.此其異於先儒,故或人據上文杜之異旨,執先儒以問曰:《春秋》以錯文見義,其文異者,必應有義在焉.若如所論,辭有詳畧,不必改也,則經當有事同文異而無其義意者也.先儒所傳,皆不其然,今何以獨異?欲令杜自辯之.莊二十五年陳侯使女叔來聘,傳曰嘉之,故不名.僖二十五年,衛侯燬滅邢,傳曰同姓也,故名.褒則書字,貶則稱名,褒貶在於一字,褒貶雖在一字,不可單書一字以見褒貶,故答或人曰《春秋》雖以一字爲褒貶,皆須數句以成言語,非如八卦之爻,可錯綜爲六十四也.卦之爻也,一爻變,則成爲一卦;經之字也,一字異,不得成爲一義,故經必須數句以成言,義則待傳而後曉,不可錯綜經文,以求義理,故當依傳以爲斷.文異者,丘明不爲發傳,仲尼必無其義,安得傳旨之表妄說經文?以此知經有事同文異而無其義者也.數句者,謂若隱元年秋,七月,天王使宰咺來歸惠公仲子之賵及昭十三年夏,四月,楚公子比自晉歸于楚,弑其君于于乾谿.此皆三句以上.《春秋》一部,未必皆然.杜欲盛破賈·服一字,故舉多言之.或以爲數其文句,義亦得通.錯綜其數,易上繫辭文,謂交錯綜理之。」

34) 〈序〉 여러 곳에서 《左傳》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蓋周

번째 부분은 '五例'에서 이미 확인된 사안이므로 다시 논술하지 않겠다.

요점은 바로 '一字褒貶'과 《周易》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에 있다. 《正義》를 참고해보면 대략 다음의 논지이다. 易의 卦는 하나의 뜻이 변하면 완전히 다른 한 卦가 된다. 만약 《春秋》의 글쓰기를 '一字褒貶'이라고만 본다면, 이것은 한 글자에 의해 전체 문장이 바뀌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니, 바로 《周易》의 그것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熱河日記·序》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이 보인다.³⁵⁾

글을 써서 교훈을 남기되 神明의 경지를 통하고 事物의 자연법칙을 꿰뚫은 것으로서 《易經》과 《春秋》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易經》은 微하고 《春秋》는 顯하니, 微란 주로 진리를 논한 것으로서, 그것이 흘러서는 寓言이 되는 것이요, 顯이란 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것이 변해서 外傳이 이룩되는 것이다. 著書하는 데는 이러한 두 갈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내 일찍이 시험삼아 논하여 보았다. 《易經》의 六十四卦 중에서 언급한 물건으로서 용이니, 말이니, 사슴이니, 돼지니, 소니, 양이니, 범이니, 여우니, 또는 쥐니, 꿩이니, 독수리니, 거북이니, 봉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참으로 있었던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하진 못할 것이다. 또 인간에 있어서는 저 웃는 자, 우는 자, 부르짖는 자, 노래 부르는 자나, 또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엉덩이에 살이 없는 자, 그 적추의 살이 벌어진 자 들을 언급하였는데, 그런 인간이 참으로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藋草를 뽑아서 卦를 벌이면, 그 참된 象이 끝나 나타나고 吉凶과 悔吝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微로부터 顯의 경지로 지향하는 까닭이었으니, 寓言을 쓰는 이가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다. 《春秋》중에 기록된 2백 42년 사이의 일에는, 온갖 제사와 狩獵과 조희와 회합과 征伐과 침입이, 실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左丘明·公羊高·穀梁赤·鄒德溥·夾氏 등의 傳이 제각기 같지 않을 뿐더러, 이를 논하는 자들이 남이 반박하면 나는 지키기로 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이는 顯에서부터 微한 곳으로 드는 까닭이었으니, 外傳을 쓰는 이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다.……(立言設教, 通神明之法, 窮事物之則者, 莫尚乎《易》·《春秋》. 《易》微而《春秋》顯, 微主談理, 流而爲寓言, 顯主記事, 變

公之志, 仲尼從而明之, 左丘明受經於仲尼, 以爲經者不刊之書也. 故傳或先經以始事, 或後經以終義, 或依經以辯理, 或錯經以合異, 隨義而發.……古今言左氏《春秋》者多矣.……預今所以爲異, 專修丘明之傳以釋經, 經之條貫, 必出於傳.……」

35) 《熱河日記·序》의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박지원의 글쓰기에 대한 의식을 반영했다는 점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다른 여러 본에는 모두 이 〈序〉가 보이지 않고, 다만 최근에 발견된 『燕巖山房本』에 실려 있다.

而爲外傳。著書家，有此二塗。嘗試言之，《易》之六十四卦所言，龍馬鹿豕牛羊虎狐鼠雉隼龜鼈，將謂有其物邪，無之矣。其在于人，笑者泣者歌者，者跛者臀無膚者列其寅者，將謂有其人邪，無之矣。然而著有卦，其象立見，吉凶悔吝，應若桴鼓者，何也。由微而之顯故也。爲寓言之文者思之。《春秋》二百四十二年之間，郊禘蒐狩朝聘會盟侵伐圍入，悉有其事矣。然而左公穀鄭夾之傳各異，從而說者，彼攻我守，何也。由顯而入微故也。爲外傳之文者思之。……)

필자의 견해로는 이 글은 杜預의 〈序〉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熱河日記·序》는 먼저 글쓰기의 개념을 立言設教로 규정한 다음, 이의 典範으로 《周易》과 《春秋》를 들고 있다.³⁶⁾ 《周易》은 微하고 《春秋》는 顯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微와 顯은 글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이 微는 이치를 논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사실 여부는 문제시하지 않은 반면에 顯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사건을 구성하는 기사의 가감과 선택은 자유롭다고 했다. 그리고 또한 《周易》은 微에서 顯으로 나아갔고, 《春秋》는 顯에서 微로 들어갔다 했는데 이는 글쓰기의 지향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熱河日記·序》에서 주목하고 있는 《周易》의 글쓰기 방식과 《春秋》의 글쓰기 방식을 재구성해 보자.

《周易》의 글쓰기는 그 자체는 微하지만 그 微에서 顯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微로 표현한 것은 《周易》의 64卦이다. 따라서 《周易》은 微한卦를 顯하도록 풀이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상의 세계나 허구의 세계도 동원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수단이 허용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周易》의 글쓰기가 발전한 것이 寓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春秋》의 글쓰기는 그 자체는 顯하지만 그 顯으로부터 微로 들어가는 방식의 글쓰기이다. 《春秋》는 누구의 눈에나 명료하게 보이는 실제의 사건을 기술하지만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히려 사건 뒤에 가려진다. 다시 말하면 《春秋》의 작가는 사건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 아니라

36) 《熱河日記·序》내용으로 보면, 《周易》의 글쓰기는 《周易》經부분의 글쓰기를 말한다.

사건에다가 자신의 의도를 은밀하게 부가시켜 놓은 것이다. 이리하여 《春秋》의 글쓰기는 필요하다면 실제의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한다면 역사가가 자신의 역사관을 펼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이 《春秋》의 글쓰기가 발전한 것이 外傳이라고 했다. 이상을 참작해 필자의 졸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正義》의 설명과는 궤를 달리하여 생각해본 것임을 밝혀둔다.

《春秋》는 편년체라는 체재의 속성상 1년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글로 쓴다. 다시 말해 《春秋》의 글쓰기는 최소단위가 1년 동안의 사건임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간적 분리가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春秋》의 글쓰기에서 대상범주는 편년체라는 관습 또는 편의에 따라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春秋》에는 기사가 전혀 없는 날이나 달은 부지기수이지만 기사가 전혀 없는 년도는 없다. 이것은 글쓰기의 대상범주를 1년 동안의 사건으로 《春秋》의 저자가 스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春秋》에 기록된 기사 하나 하나가 글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각각의 기사들에서 그 나름의 체계를 갖춘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春秋》의 저자는 이러한 개별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연속되던 연속되지 않던 간에 몇 개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엮어서 글쓰기를 한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모두를 다룰 수는 없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독립적이고 무연한 개별적인 사실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春秋》의 글쓰기이다. 이와 동시에 상호관련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사실들은 제거된다. 최종적으로 남은 개별적인 사실들은 서로 결합하여 마침내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杜預는 ‘數句以成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春秋》가 비록 한 글자로 褒貶하지만, 모두 여러 구절로 말을 이루는 것이다”를 보면 그 뜻이 무리 없이 이해될 것이다.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각 條를 연결해 보면, 저자의 褒貶과 好惡가 드러난다.³⁷⁾ 즉 한 문장, 한 사항이라면 별 특색이 없지만, 동류의 사

37) 이것은 《禮記》에서 말하는 屬辭比事의 기법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건을 모으고 종합해 읽어보면, 거기에 담긴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 글자로 褒貶을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글자에 매달리는 讀法으로 전체를 본다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杜預는 ‘一字褒貶’보다는 ‘數句以成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V. 결론

本稿는 익숙하지만 모호하게 사용되는 春秋筆法이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左傳學派만을 대상을 한정하여 杜預와 孔穎達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杜預는 자신의 〈序〉에서 春秋筆法의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하였고, 이에 《左傳》의 문구를 인용하고 활용하여 ‘五例’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古代부터 내려오는 史書 편찬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귀납 정리한 것으로, 중국학술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의 通說인 ‘一字褒貶’을 止揚하고 독창적인 ‘數句以成言’의 개념을 제시하여 《春秋》의 글쓰기에 대하여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 산문의 원시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큰 계발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序〉를 이해하는데 《正義》가 필수 불가결한 자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五例’와 ‘數句以成言’이 春秋筆法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杜預의 주장이 갖는 가치는 별개의 것으로, 적어도 어떻게 《春秋》를 이해하려 시도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필자는 본 작업을 통해 《禮記》에서 말한 ‘屬辭比事’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불가결함을 느꼈다. 차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작업과 마찬가지로 《公羊傳》과 《穀梁傳》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여 春秋筆法에 대한 세 학파의 관점을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별도로 논하려 한다. 《禮記·經解》: 「屬辭比事, 《春秋》教也.」

【참고문헌】

- 杜預 《春秋經傳集解》，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 杜預 孔穎達 《春秋左傳注疏》，北京，中華書局，1980
- 陸淳 《春秋集傳纂例》，古經解匯函本
- 陸淳 《春秋集傳辨疑》，古經解匯函本
- 劉敞 《春秋權衡》，通志堂經解本
- 王哲 《春秋皇綱論》，通志堂經解本
- 葉夢得 《春秋考》，清武英殿聚珍版
- 呂大圭 《春秋五論》，通志堂經解本
- 陳澧 《東塾讀書記》，清經解續編本
- 郝懿行 《春秋說略》，光緒七年本
- 康有為 《新學偽經考》，北京，古籍出版社，1956
- 錢鍾書 《宋詩選注·序》，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8
- 皮錫瑞 《經學通論》，臺北，臺灣商務印書館，1969
- 皮錫瑞 《經學歷史》，臺北，臺灣商務印書館，1972
- 楊伯峻 《春秋左傳注》，北京，中華書局，1981
- 戴君仁 等著 《春秋三傳研究論文集》，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1982
- 傅隸樸 《春秋三傳比義》，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3
- 錢鍾書 《管錐編》，北京，中華書局，1986
- 朱熹 《朱子語類》，北京，中華書局，1986
- 康有為 《春秋董氏學》，北京，中華書局，1990
- 沈玉成 劉寧 《春秋左傳學史稿》，南京，江蘇古籍出版社，1992
- 侯外廬 《中國思想通史》，北京，人民出版社，1980
- 程元敏 《春秋左氏經傳集解序疏證》，臺北，臺灣學生書局，1999

【中文提要】

杜預的《春秋經傳集解》在《春秋》研究中有着重要的地位。從某種意義上說，《春秋經傳集解》的出現標識着春秋學研究的里程碑。《集解》對後世研究所給予的極大便利自不待言。其〈序〉是《集解》的總綱要，

因此引起了學者的無限關注。杜預有關春秋筆法的看法，在〈序〉中表達得非常清楚。其中五例和數句以成言問題是春秋研究史上的一個重要問題，古今學人衆說紛紜。本文在前賢研究成果的基礎上，指出所謂五例既是左傳作者所總結的春秋筆法原則，也是杜預本人關於春秋研究的宣言。至于數句以成言，可以說杜預創獲的春秋筆法原則，依杜預〈序〉解春秋筆法，它仍然具有學術價值。

【주제어】

春秋筆法, 五例, 杜預, 春秋經傳集解序, 春秋正義